

# 순천시, 다음달부터 '재활용전용청소차' 본격 도입 운행

### 투명페트병·스티로폼 등 재활용쓰레기 전용차량으로 수거 압축하지 않고 원형대로 수거·처리해 재활용률 높일 계획

순천시가 3월부터 도심지 단독주택, 상가지역에 재활용전용청소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활용전용청소차를 도입해 가정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 스티로폼, 유리병 등 재활용쓰레기를 압축(작)하지 않고 원형대로 수거·처리하여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활용전용청소차가 수거하는 쓰레기는 선별시설이 있는 중앙 자원화시설로 곧바로 반입 재처리되므로 (중간처리시설인 왕지쓰레기매립장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무엇보다 쓰레기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철저

한 분리배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에서는 재활용률을 배가시키기 위해 재활용전용청소차 도입과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원도심 10개 지역(가곡, 용당, 매곡, 남내, 중앙, 동의, 장천, 저전, 인제, 남정동) 단독주택, 상가, 원룸에 투명페트병 전용봉투를 세대별 월 2매 지급하여 매주 수요일에 중점 수거기로 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은 박스는 반드시 이물질(송장스티커, 포장테이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하고 스티로폼은 부수지 말고

원형대로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캔·유리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이물질 제거 후 내놓아야 한다. 또, 종이팩(우유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말린 후 펼쳐서 배출하고, 과일망, 고무장갑, 노끈, 오염된 용기(컵라면)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순천시민은 스스로 내집·상가 앞 청소 및 재활용 분리배출 잘하기, 행정에서는 배출된 쓰레기(대형폐기물) 신속히 수거하고 거리 청소 잘하기 등 민·관이 함께 땀 흘려 환경정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여수시, 두 번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화장동서 개소

### 5개 노선 44대 차고지 확보...시내버스 주정차 안전사고 예방 및 운수종사자들 근로여건 개선



여수시 두 번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화장동에서 문을 열었다.

여수시는 27일 정기명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소식을 가

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화장동을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5개 노선 44대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기존 신월동 차고지와 함께 두 개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에 들어간다.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지난해 무선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너편에 총 면적 4,770㎡으로 국비 3억 원, 시비 10억 원 등 1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버스주차 26대, 승용차주차 7대, 장애인주차 1대를 포함한 34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간이정비시설 1개소를 설치했다. 또한 버스 운송업체의 업무처리 및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사무실, 식당, 주방,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도 갖췄다. 여수=김현근 기자

## 고흥군, 랩핑버스 광고로 전국에 고흥 알린다

고흥군은 고흥의 중점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군정 홍보 랩핑버스'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차량 랩핑(wrapping)광고는 실사 출력한 디자인이나 내용을 교통수단 등에 부착해 홍보하는 전략으로,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어 대중성이 높아 홍보에 자주 활용된다. 고흥군은 기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 고정된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홍보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흥군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버스 랩핑공고를 올린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게 됐다. 군은 군정홍보를 위한 랩핑광고 차량 2대를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해 서울·경상도권 노선을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고흥군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랩핑광고 디자인의 주요특징은 깨끗한 고흥을 상징하는 '청색'을 바탕으로 우주,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과 고흥유자, 유자골 한우로 대표되



는 '청정지역의 깨끗한 특산물' 등의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적 광고 효과를 극대화 했다는 점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위기가구 버팀목 '톡톡'

보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위기가구 발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 지난 24일 보성군 별교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별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6명)를 선정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발견한 위기가구로 긴급 지원금(20~40만 원)이 지급된다. 간담회를 마친 복지기동대원 11명은 거동이 불편해 청소 및 생활이 어려운 독거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

쳤다. 별교읍 오경택 복지기동대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계신다면 복지기동대원들이 언제 어디든 신속하게 달려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남규 별교읍장은 "생업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복지기동대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며, "별교읍 행정복지센터도 지속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광양시, 재경광양향우회 고향의 정취에 흠뻑 빠졌다

### 고향 우수 농·특산물 홍보

광양시는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테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리는 재경 광양시향우회 2023년 정기총회와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재경향우회 회원과 광양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의 정(情)을 나누는 자리 속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우리 고향 농산물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해 홍보 부스를 마련했다. 행사는 정홍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11명의 센터 직원들이 팀을 이뤄 광양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와 시음·시식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광양=김현근기자



매일 가공품 등 총 15종 30점(단감, 쌀, 참다래, 재첩국, 돌배추, 생강가공품, 새싹삼, 부각, 고로쇠, 주류, 장류 등)의 상품 실물과 농·특산물 홍보 팸플릿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재경 향우들의 애향시 고향과 내 고향 농·특산물 사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광양=김현근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